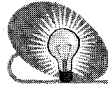


지 상 발 명 학 교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모방과 창조의 참뜻을 알자

'모방'이라는 말은 우리의 정서에는 그다지 좋은 뜻으로 통하지 않는다. 웬지 창조적 정신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통하고 간사하다는 느낌마저 갖게 한다. 물론 모방이라는 말뜻에 이런 의미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창조의 뜻이 숨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모방하지 못하는 자는 창조도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예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모방의 연속이었다.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을 흉내내려 애썼다.

한 부족에서 철검을 만들면 다른 부족에서도 만들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모방의 연속은 그것을 개선하려는 힘과 함께 창조로 이어진 것이다.

모방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이다. 일본이야말로 모방의 묘미를 최대로 살린 나라였다. 일본의 최

대기업인 마쓰시다가 마네시다, 즉, 모방기업이라는 말로 불

리울 정도로 일본은 흉내내기의 천재였다. 심하게는 마

쓰시다의 신제품개발부는 남의 회사제품을 분해해

서 알아내는 분해부라고 조롱당하기도 했다. 하

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 마쓰시다를 마네시다라 부르고, 일본을

산업 스파이 왕국이라고 부르는 그 조롱속에

는 일부 부러움의 뜻도 담겨 있는 것이다.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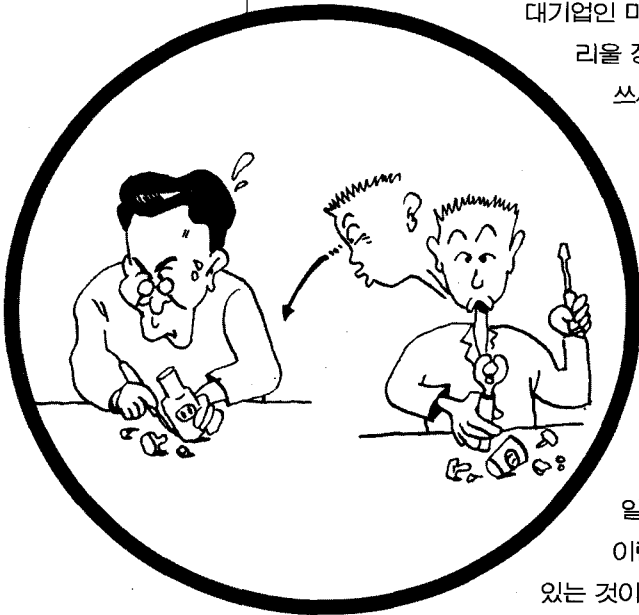
종의 시샘어린 투정이라고나 할까?

"세상에! 우리 제품을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우리가 저것을 만드는 데 10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단 일주일만에 그것을 소화해냈어!"

이런 찬사가 그들의 경멸과 조롱어린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모방이 옳다는 것은 아



니다. 인기에 편승해 똑같이만 만드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일본도 무조건적인 모방은 철저히 비난했다. 모방을 하되 그것에 새로운 것을 덧붙여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조합하는 창조도 있다

인간이 시도하는 창조란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유에서 새로운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이미 존재해 있는 여러 소재들을 다시 재조합하는 것이 창조인 것이다.

나무와 끈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것들은 각자 사용해서는 효과적인 사냥 도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가지를 조합하면 아주 놀라운 무기로 변신한다.

“아해! 활을 말하는군...”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며 무릎을 칠 것이다. 창조란 바로 이와같은 것이다.

돌과 끈을 결합해도 훌륭한 무기가 된다. 연필과 지우개를 합하여 멋지고 새로운 연필을 만들었고, 스프링과 종이 만나서 쓰기 편한 공책이 탄생했다. 이밖에도 수많은 것들이 간단한 조합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이런 예들을 열거하다 보면 창조란 것이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창조라는 것은 생각보다 참으로 간단하군. 나도 얼마든지 하겠는걸...”

이런 생각을 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실제로 앞에 나열한 예들도 어느 특정한 발명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결합시킨 것이 모두 발명품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 조합의 과정엔 중대한 법칙이 있다. 조합물이 반드시 어떤 쓸모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무 쓸모도 없다면 그것을 창조물이라 부를 수 있을까? 창조란 것은 절대적으로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를 갖기 위해선 재료와 재료 사이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조합하고자 하는 사물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창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 간의 관련성을 따지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는 속에서 우리는 연금술사와 같이 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王> **발특 9904**

